

로마황제 근위대의 역할과 위상

趙 永 植*

1. 머리말
2. 로마황제 근위대의 역사적 발전과정
3. 로마황제 근위대의 정치·사회적 역할
4. 맺음말

1. 머리말

기원전 29년은 로마사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뜻깊은 해였다. 기원전 31년 악티움(Actium) 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거의 1세기 동안 계속되어 오던 내란을 종식시킨 옥타비아누스가 귀환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양부(養父)인 카이사르의 교훈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는 명목보다 실리를 추구하였다. 성대한 개선식을 거친 후 그는 과감히 내전의 시발점이자 종착역 중심에 있던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허울에 불과했으며, 그것은 향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원

수정 체제(*principatus*)¹⁾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 자신이 로마 시민들과 동등하며, 단지 시민명부에 첫 번째로 등재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augustus*)’, ‘국부(*pater patriae*)’, ‘마이우스 임페리움(*maius imperium*)’ 등과 같은 용어가 의미하듯, 그것은 제국의 모든 권한과 권위가 실질적으로 일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위장된 군주제’였던 것이다.²⁾ 이렇게 성립된 원수정 시대 황제 권력의 원천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황제가 직·간접적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군사력에 있었다. 재정과 더불어 군대는 황제 그 자신은 물론 제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황제 권력의 생성-유지-붕괴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황제권이 동요할 때, 제국내의 반대파, 속주반란, 음모자 등과 함께 그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세력으로 황제의 가장 두려운 대상이기도 했다.

이에 아우구스투스 자신은 물론 후대의 원수정기 로마황제들은 가족을 포함한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호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개선식장, 검투 경기장, 공연장, 공회당 등 대중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심지어 시민들의 청원서와 외국사절을 직접 맞기도 했다. “로마 황제들은 친구와 해방노예 더구나 아내까지 가담한 음모에 의해 암살되었으며, … (그들은) 자기의 운명뿐 아니라 … 칼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언급하고 있는 수에토니우스(Suetonius)의 주장처럼,³⁾ 그들은 음모자들의 불미한 행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황제의

1) 사실 아우구스투스가 확립한 프린키퍼투스(*principatus*)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시대부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략 3가지(① 공화정의 연속성, ② 새로운 일인 지배체제, ③ 공화정 혹은 일인 지배체제도 아닌 양두체제)로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퍼투스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pp. 1-7를 참조할 것.

2) Tacitus, *Annales*, 1.2; Gibbon, 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1(ed. Bury, J. B.), p. 7.

3) Suetonius, *Domitianus*, 21.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부교수

측근부대로서 근위대(*Praetorian Guard*)는 바로 이러한 내·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황제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써뿐만 아니라 제국 내의 각종 음모와 반란 등 사회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통치수단(*instrument of rule*)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들의 관심사항에서 벗어나 있었다. 20세기 초반 듀리(M. Durry)⁴⁾와 파세리니(A. Passerini)⁵⁾에 의한 일반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 이후 그 어떤 역사가에 의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의 그 어떤 고대사가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이전에 황제의 중요한 통치수단 중 하나로서 근위대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관심⁶⁾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관심은 황제의 개인적 경호부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후 근위대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원(原)사료는 물론 고대사가들의 여러 관심들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근위대가 단순히 황제의 경호를 위한 측근부대가 아닌 엘리트 집단으로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역할이 오히려 중요했으며, 실제 그렇게 행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관심은 이전의 연구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로마황제 근위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자의 주요 관심사항인 정치·사회적인 역할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근대 이후 독재자들이 일반적으로 측근부대를 기반으로 한 정치를 지향했던 근대국가의 성격을 조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로마황제 근위대의 역사적 발전과정

(1) 공화정 및 아우구스투스 황제기

원수정 시기 황제 근위대는 아우구스투스 개인의 독특한 발명품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공화정 시기부터 존재했던 관습적 전통을 제도화한 것뿐이었다. 기원전 2세기 이전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호스 프레토리아(*cohors praetoria*: 근위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는 그 어떤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훗날 근위대의 어원이 되는 여러 용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프레토리아(*praetoria*)는 공화정기 군사령관을 의미했던 프레토르(*praetor*)에서 유래되었으며,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된 프레토리움(*praetorium*)은 군주든지 내의 군사령관 숙소를, 포르타 프레토리아(*porta praetoria*)는 주둔지로 통하는 주요 관문을 의미한다.⁷⁾ 이와 관련된 '코호스 프레토리아(*cohors praetoria*)'는 기본적으로 사령관의 개인적 경호나 다른 임무를 위해 자신이 직접 선택한 집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공화정시기부터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공화정기 군사령관들이 원정 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측근들을 개인적인 경호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공화정기 로마군대는 기본적으로 지원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은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군대 구성원조차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그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집단을 필요로 했다. 바로 이 집단이 코호스 프레토리아(*cohors praetoria*)⁸⁾로,

4) Durry, M., *Les Cohortes Pretoriennes* (Paris, 1938).

5) Passerini, A., *Le Coorti Pretorie* (Roma, Angelo Singnorelli, 1939).

6) 줄고, 「원수정기 로마황제와 친위대」, 『공사논문집』, 2004, pp. 120-143.

7) Boris Rankov, *Guardians of the Roman Empire*, Osprey Publishing Ltd, pp. 4-5. 줄고, 앞의 논문, p. 122.

그 구성원은 주로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친척, 친구, 해방민, 혹은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피(被)보호인이었다. 그들의 기능은 단순히 사령관의 신변보호만이 아니었다. 전쟁 전면에 나서 극적인 반전을 꾀하는 등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령관의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공화정기 이러한 근위대의 기원에 관한 최초의 사례는 기원전 134년⁹⁾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Scipio Aemilianus)가 스페인 원정 시 소위 '호위부대(troop of friends)'라 부를 수 있는 500명의 측근부대를 조직하여 동행했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그들이 로마황제의 최측근 부대로서 그 위용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공화정 후반기 술라(Sula)로부터 시작하여 옥타비아누스(Octavianus)로 종결되는 내전의 과정을 거치면서였다. 이에 관한 아피아누스의 언급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카이사르 전통을 이어받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등 경쟁자들은 각각 카이사르 휘하에 있던 군단들의 제대 병사들 중에서 자신들의 경호부대를 조직하였다. ... 그들은 군대 잔존병력 8,000명을 제외하고 모든 병사들을 제대시켰다. (그리고) 잔존 병력을 근위 보병대로 분류하였다....¹⁰⁾

내란과정에서 카이사르를 비롯한 군사령관들은 각기 자신들의 경호부대를 갖추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 동안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있었던 제10군단을 최후까지 자신을 보호해 줄 경호부대로 활용하고 있었던 바, 아리오비스투스(Ariobistus) 반란 시 그와의 최후담판 시에도 그들을 동행하기도 했다.¹¹⁾ 그의 이러한 전통은 사후에도 계속되었다. 수많은 제

8) 이하 근위대 혹은 근위 보병대로 표기한다.

9) 이후 별도 연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기원후를 의미한다.

10) Appianus, Civil War, Vol. 3.

11) 카이사르는 아리오비스투스 반란 시 단 한사람도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0군단만은 그와 함께 전진하며 호의해 줄 것이라도 믿고 있었다. Caesar, Bello Gallico, 1.40.

대 병사들 중에서 안토니우스는 3개 근위 보병대를, 옥타비아누스는 5~9개 근위 보병대를 새롭게 조직화하였다. 이들은 기원전 31년 기나긴 내란의 종지부를 찍는 악티움 해전에서 역사적 조우를 하게 되었고, 최후의 승리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본인 스스로 장엄하게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하며 감추려 했지만, 그것은 황제 근위대를 비롯한 제국군대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군대의 재결집이라는 명목하에 경쟁자들의 군대와 기존에 있던 자신의 군대를 통합하였고, 이후 로마군대의 유일한 총사령관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개인 경호부대인 근위대를 창설했던 것이다.¹²⁾

원수정기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이러한 근위대의 창설 시기는 기원전 27년으로 인정되고 있다. 디오(Dio)는 기원전 27년 근위대가 군단병사들에 비해 두 배의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엘리트 군대로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장할 수 있었던 바, 이는 내전의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¹³⁾ 기원전 27년 이렇게 창설된 9개 보병대는 전갈무늬가 새겨진 군기(軍旗)와 더불어 I~IX 보병대라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었다. 이들 중 3개 보병대를 도시 로마에 배치하였고, 나머지 6개 보병대는 로마 인근지역에 주둔케 하였던 바,¹⁴⁾ 이는 수에토니우스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를 패배시킬 때까지 아우구스투스는 자신 주변에 두고 있던 게르만 경호대를 해체하였으나, 도시 로마에 3개 근위 보병대보다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숙소도 제공하지 않았다.¹⁵⁾

박광순 역, 『갈리아 전기』, pp. 56-58.

12) 줄고, 앞의 논문, p. 123.

13) Dio, 53.11.5.

14) Tacitus, Annals, 1.7.36, 줄고, 앞의 논문, p. 123.

15) Suetonius, Augustus, 49.

그렇다면 아우구스투스가 이처럼 9개 근위 보병대 모두를 도시 로마 한 곳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흩어지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군대라는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요컨대, 그는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닌 원로원의 도전을 회피하고, 프린켑스로서 황제의 권위를 위장하고자 근위대의 상당부분을 흩어져 주둔케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근위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사실상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새롭게 조직된 근위대는 기존의 군단과는 다른 독립적 부대라 할 수 있다. 군단의 천인대장 출신 지휘관이 근위대장에 임명되었으며,¹⁶⁾ 그들은 주로 기사출신이었다. 기원전 2년 아우구스투스는 두 명의 공동 근위대장을 임명하였다. 한 명의 지휘관이 통제하는 일반 군단과는 달리 그는 두 명의 지휘관을 임명했던 것이다. 이처럼 근위대의 지휘권을 분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공화정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그는 근위대 창설 초기 공화정의 전통에 순응하고 로마 시민들과의 차별성을 피하며, 근위대 병사들에게 로마 시민들 중 하나임을 강조했던 것이다.¹⁷⁾ 말하자면, 그는 원수정 체제를 지향하면서도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의 통치기반이 군대가 아닌 공화정의 전통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며, 이러한 그의 교묘한 정치술이 근위대의 활용 측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2)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기 및 이후

14년 아우구스투스 사망 후 티베리우스가 제위를 이어 받았다. 공화정 몰락 이후 로마제국에서 제위가 계승된 첫 번째 사건이었다. “아우구스투스

가 사망하고 티베리우스가 정식으로 그의 죽음을 선포하기 전까지 그의 집을 병사들로 둘러싸게 하였다”는 타키투스의 언급처럼,¹⁸⁾ 이는 새로운 황제의 제위를 보장할 새로운 근위대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공식적으로 언제 임명되었는지 명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아우구스투스 사망 당시 근위대장 루키우스 스트라보(Lucius S. Strabo)는 이미 새로운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고, 콘술들의 새로운 황제에 대한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이는 근위대가 로마제국 권력의 생성 및 유지에 핵심적인 위치로 도약했음을 반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이제 막 즉위한 새로운 황제의 세심한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이어졌다. 근위대가 아우구스투스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이다. 병사들의 장례식 참석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공화정기 술라나 카이사르 장례식 때에 수많은 병사들이 참석했던 전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공화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참석했던 군대나 병사들이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몰랐던 공화정 때와는 달리 아우구스투스 장례식은 황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근위대가 참석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바로 황제의 개인적 병사들이었고, 모두가 티베리우스에게 충성한 병사들이었던 것이다.¹⁹⁾

새로운 황제 즉위 초기 근위대에 대한 그의 의존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태가 변경선에서 발생하였다. 티베리우스 즉위 직후 판노니아(헝가리)와 라인지방 주둔 군단병사들이 장기복무와 급여, 구타, 학대 등 복무조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황제에게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여분의 병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사용가능했던 군대는 근위대를 비롯하여 친족이 사령관으로 있던 군단뿐이었다. 실제 티베리우스는 판노니아 주둔군 반란 진압을 위해 아들 두르수스 2세를 사령관으로 근위대, 근위기병대, 게르만 경호대를 동원하여 진압토록 하였다.²⁰⁾ 라인지방 주둔군 반란

16) 근위대장 휘하에 9명의 천인대장 및 54명의 백인대장을 두고 있었다.

17) Michael Grant, *The Army of the Caesars*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74), pp. 90-91, 줄고, 앞의 논문, pp. 1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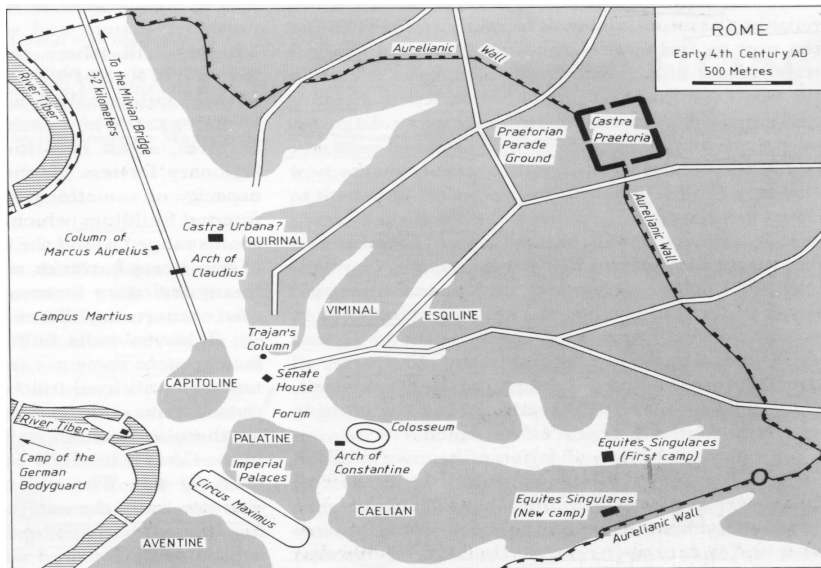
18) Tacitus, *Annals*, 1.5.3-4.

19) Tacitus, *Annals*, 1.8.6, Suetonius, *Augustus*, 99.2-100.4.

진압을 위해서도 자신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게르마니쿠스(Germanicus)를 보내 수습토록 하였고, 이후 그는 14~16년 동안 세 번에 걸친 원정을 통해 아르미니우스(Arminius)를 패배시키는 등 불안했던 게르마니아 변경선을 안정화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²¹⁾

하지만 티베리우스 통치 시 황제의 근위대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킨 보다 근본적인 동기는 변경선에서의 이러한 외형적인 사건보다 새로운 근위대장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세야누스(Lucius A. Sejanus)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그는 도시 로마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던 근위대를 한곳에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의도적으로 주저했던 정책을 정면으로

[그림 1] 로마시의 근위대 주둔지 위치



출전 : Boris Rankov, *Guardians of the Roman Empire*, p. 5.

20) Boris Rankov, *Guardians*, pp. 10-11.

21) Fritz M. Heichelheim, *A History of the Roman People*, New Jersey, 1984, p. 318.

위반하는 것이었다. 타키투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²²⁾이제까지 근위대에 대한 황제의 직접통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데 반해, 세야누스가 근위대를 동일한 주둔지에 집결시킴에 따라 그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각종 명령들이 동시에 모든 부대에 전파되었고, 가시적인 전력증강은 로마시민들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후 그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황제를 대신하여 근위대 병사들에게 연설하기도 했으며, 근위대 내의 백인대장은 물론 천인대장 등 지휘관 선발에도 황제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요컨대 그는 근위대 병사들을 한곳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 구실은 물론 근위대 병사들의 군기강 확립, 전력증강, 위기 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근위대가 순수한 군사적인 의미보다 황제의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게 해줄 뿐이었다. 황제가 근위대 병사들에게 동시에 각종 명령을 직접 내렸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주둔지의 설립 시기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무장한 병사들의 영구기지가 도시 로마에 세워진 것은 로마 역사에서 극적인 사건이었다. 정치적 기반이 불안했던 티베리우스 황제는 근위대를 통한 도시 로마와 원로원에 대한 통제를 원하고 있었다. 동시대 사가들의 언급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컨대, 타키투스는 세야누스가 근위대를 황제 지근거리로 주둔시킴으로써 그를 직접보좌하려 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²³⁾ 디오 또한(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야누스에게 여러 분야에서 의존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²⁴⁾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제 근위대장은 언제나 황제와 함께 하게 되었고, 제국 운영에 있어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임무상의 동

22) Michael Grant, *The Army*, p. 131 재인용, 참고, 앞의 논문, p. 125.

23) Tacitus, *Annals*, 6.8.2.

24) Dio, 57.19.7.

업자로 황제의 사적문제뿐만 아니라 원로원 및 시민과 함께할 때도 언제나 그 주변에 있었다. 사실상 세야누스는 황제의 개인적 영역은 물론 군사 및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바, 이후 근위대의 역할은 아우구스투스 시대보다 훨씬 광범위해졌다. 경기장에서 시위진압, 질서유지, 소방임무, 극장 경호, 황제가문 경호, 범죄수송 등 도시 로마의 광범위한 행정적 임무에 투입되었다.²⁵⁾

근위대 주둔지가 완성되고 정주하게 됨으로써 근위대 병력 또한 9개 보병대에서 12개 보병대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임무 또한 확대되었다. 늘어난 3개 보병대를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도시 로마의 각종 행정적 임무까지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위대의 규모는 원수정기 끊임없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창설 초기부터 3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헌적 사료를 통해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타비아누스가 내전기의 군단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9개 보병대 규모의 새로운 근위대를 창설하였다. 그는 이것을 12개 근위대 보병대로 개편하였으며, 이 중 3개 보병대를 수도경찰대로 임무를 전환함에 따라 다시금 9개 근위대 보병대로 정착되었다. 이후 그 숫자는 칼리굴라 및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이르러 12개 보병대로 증가하였고, 69년 비텔리우스 황제가 기존의 근위대를 해산하고 새롭게 16개 근위 보병대를 창설하였다. 다시금 이것은 76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이르러 9개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것을 10개로 늘렸다가 9개로 환원하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근위대가 해산될 때까지 그 규모가 유지되었다.²⁶⁾

그렇다면 과연 원수정기 근위대 병사들은 누구였으며, 어느 지역에서 모병되었을까? 근위대 병사로 복무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특권이었다. 변경 주둔군, 소방대, 해군 등에 비해 복무기간이 짧았으며, 그들에 비해 더 많은 봉급을 받았음은 물론 도시지역인 로마에서 복무할 수 있

25) Tacitus, *Annals*, 6.13.1.

26) Boris Rankov, *Guardians*, pp. 10-11, 줄고, 앞의 논문, p. 126.

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병사들에게 있어 매력적이었다.²⁷⁾

이러한 근위대 병사들의 모병지역은 매우 광범위했다. 2세기 이전까지 그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출신이었다. 티베리우스 시대까지 그들의 출신 지역은 주로 라티움, 움부리아, 에트루리아 및 전통적 식민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이르러 포강 유역의 키살피나 갈리아(*Cisal-pina Gallia*) 지역이 포함되었다.²⁸⁾ 요컨대, 1세기 동안 이탈리아인들이 86.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3.7%만이 이탈리아 외부지역에서 모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3세기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서방지역 60.3%, 동방지역 39.7% 등 전적으로 이탈리아 외부지역에서 모병되었던 것이다.²⁹⁾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로마제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황제의 출신 배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원수정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경우처럼 내전의 과정을 거쳐 제위에 올랐던 황제일수록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자신이 지휘했던 변경 주둔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1> 원수정기 근위대 병사 모병지역(%)

	Julio-Claudians	AD69-98	AD98-161	AD161-200	평균
Latium/Campania	7.5	4	9	13.7	8.5
Umbria	2.5	8	10	10.1	7.6
Etruria	22.5	6	20	10.1	14.6
Cisal-pina Gallia	52.6	40	40	27.8	40.2
Rest of Italia	2.5	10	11	6.5	7.5
Non-Italians	12.4	32	10	31.8	21.6

출전 : J. Richard, "*Romana vere Iuventus*", p. 75.

27) 줄고, 앞의 논문, p. 127.

28) Tacitus, *Annales*, 4.5.

29) Yann Le Bohec, *The Imperial Roman Army*, Hippocrene Books, New York, 1994, p. 99.

이러한 경향은 <표 1>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근위대 병사 모병은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시대 라티움/캄파니아 7.5%, 움부리아 2.5%, 에트루리아 22.5%, 키살피나 갈리아 52.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이탈리아 내 다른 지역이 2.5%, 이탈리아 외부지역이 1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3세기에 이르기까지 라티움/캄파니아 지역의 경우 4% → 9% → 13.7%로 변화하였고, 움부리아 지역의 경우 8% → 10% → 10.1%, 에트루리아의 경우 6% → 20% → 10%, 키살피나 갈리아 지역의 경우 40% → 40% → 27.8%로 변화하였다.

계속하여 2세기 중엽까지 근위대 병사의 모병은 대체적으로 라티움/캄파니아 9%, 움부리아 10%, 에트루리아 20%, 키살피나 갈리아 40%, 이탈리아 내 다른 지역 11%, 이탈리아 외부지역 10% 등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시대와 비교하여 움부리아 지역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었다.³⁰⁾ 하지만 안토니우스 피우스 사후(161년)부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시대(193-211년)까지 라티움/캄파니아 13.7%, 움부리아 10.1%, 에트루리아 10.1%, 키살피나 갈리아 지역 27.8%, 이탈리아 내 다른 지역 6.5%, 이탈리아 외부지역 31.8%로, 키살피나 갈리아가 10%(40 → 27.8%) 이상 감소한 반면 이탈리아 외부지역이 20%(10 → 31.8%)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3세기 이전까지 근위대 병사의 출신지는 키살피나 갈리아와 에트루리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그 자리를 이탈리아 외부지역이 대신하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인구 및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키살피나 갈리아는 포강 유역의 기름진 지역으로 다른 곳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유한 편이었다. 이는 공화정 후반 군사령관들이 의도적으로 제대 병사들을 그곳에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속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¹⁾

30) J. Richard, "Romana vere luventus"(Univ. of North Carolina, MA, 1978), p. 75.

31) J. Richard, "Romana", pp. 78-79, 줄고, 앞의 논문, p. 131.

하지만 2세기 말 이후 이러한 현상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이탈리아 외부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12.4% → 32% → 10% → 31.8%로 변화의 폭이 심했으며, 그 방향 또한 증가 혹은 감소가 교차되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 또한 황제의 정치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내전의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황제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서 근위대 병사들을 히스파니아, 판노니아, 노리쿰, 일리리아, 트라키아, 다키아 등 자신들의 출신지역에서 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68~69년의 내전을 통해 성립한 플리비우스 왕조기에 12.4%에서 32%로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이후 10%에서 31.8%로 증가한 사실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한편, 근위대 병사들의 명확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몇몇 문헌적 증거는 그들이 정무관 출신 자녀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³²⁾ 현대의 몇몇 사가들 또한 근위대 병사들의 상당부분이 군인 자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³³⁾ 우리는 이러한 부분적인 연구 성과와 문헌사료를 통해 희미하나마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은 군인 혹은 자유민이라는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그들이 속주나 자치도시의 상류층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원수정기 근위대의 특권적 지위는 여러 가지 문헌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제대증(Diplomata)으로 군단병사, 보조군, 해군의 경우와는 달리 근위대 병사들은 황제에 의해 제1의 병사로 지칭되어 있으며, '용감하고 충성스럽게 군복무를 마친 병사들을 위하여'³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병사들보다 많은 특권을 받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근위대는 수도 로마에서의 근무 가능성, 높은 임

32) J. Richard, "Romana", pp. 81-82.

33) M. Grant, *The Army*, p. 93; J. Richard, "Romana", p. 82; B. Dobson & D. J. Breeze, "The Roman cohorts and the Legionary Centurionate", *ES* 8(1969), pp. 100-132, 줄고, 앞의 논문, p. 132.

34) B. Cambell, *The Emperor*, Appendix 3, pp. 439-445.

금과 신분보장, 진급에 있어 다른 병사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³⁵⁾ 이러한 혜택은 근위대 병사로 선발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근위대 병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출신 가문뿐만 아니라 신체 및 체력적인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지원자는 유력자의 천거가 있어야 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근위대 병사들은 공적에 따라 장교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일상적인 노역에서 제외되는 면제된 자(*immunis*)의 직위를 얻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신분상승 이외에 또 어떠한 특권과 혜택이 주어졌을까? 비록 여러 번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기원전 5년 근위대 병사들은 도시 보병대 20년, 군단병 25년에 비해 짧은 16년을 복무하였다. 그들이 군단병사에서 전속된 경우에도 이전 경력에 상관없이 16년만 복무하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근위대 병사에게 일반 군단병사 봉급 225테나리우스(900세스테르티우스)의 2.6배인 600테나리우스(3,000세스테르티우스)를 지급했으며,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이르러서는 800테나리우스(4,000세스테르티우스)를 지급하였다. 이는 일반병사 연봉 4.4년 치에 해당하는 거대한 액수였다. 그는 돈을 통해 근위대의 충성심을 사려 했던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황제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전례를 따랐다. 이러한 경향은 퇴직 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들은 군단병사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 일반병사들의 3,000테나리우스보다 많은 5,000테나리우스를 받았으며, 합법적인 첫 번째 결혼식과 자녀 생산 시 동(銅)으로 된 영광의 징표를 받기도 했다.³⁶⁾

근위대 병사들 중 일부가 로마군대의 주요 지휘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들은 로마시의 행정, 기술, 교육 분야는 물론 근위대 내에서 백부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졌다. 백부장은 로마군대의 전략 및 전술을 행하는 최소단위의 지휘관으로 상당히 명예롭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군복무 중 그 직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이후 사회로의 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특혜를 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들 중 일부가 선임백부장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후 몇 개의 군단에서 선임백부장 직책을 수행한 다음 로마로 돌아와 야경소방대장을 역임하고 최종적으로 근위대 사령관이 되는 이들도 있었다.³⁷⁾

그렇다면 이러한 근위대 병사들의 복장과 무장은 어떠했을까? 특정한 단위부대의 복장은 시대적 변화나 부대의 기능과 임무의 따라 그 독특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로마병사들의 복장이나 무장에 관한 사료는 각종 부조나 조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트라야누스 원기둥에 표현된 장례식 장면이나 부조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일반 군단병사나 보조군의 경우 복장과 무장 상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단지 군단병사들의 비늘형 갑옷(scale armour)과 보조군 병사들의 분절형 갑옷(segmental armour)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인의 이름이 주어진 개인장비는 장비의 가격이 일일이 새겨진 파피루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병사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변해야 했다. 다양한 재질과 장신구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곤 하였다. 요컨대 로마군대에서 근대 이후 상비군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정형적인 군장비 및 군복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³⁸⁾

근위대 병사들도 이러한 로마군대의 일반적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 역시 군단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관목형 투구, 타원형 방패, 및 아틱헬멧(Attic Helmet)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서기 51년 클라우디우스

35) Tacitus, *Annales*, 1.8; *Historiae*, 1.18; J. Richard, "Romana vere Iuventus", pp. 86-87; P. A. Brunt, "Pay and Superannuation in the Roman Army", *PBSR* 18 (1950), pp. 50-61; G. R. Watson, *The Roman Soldier* (New York, 1969), p. 332.

36) D. Breeze, "Pay Grades and Ranks below the Centurionate", *JRS* 61(1971), p. 130. 줄고, 앞의 논문, p. 133. 기타 군단병사들의 봉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은숙, 「로마 군단병들의 봉급변화」, 『대구사학』, 2004, pp. 293-322를 참고할 것.

37) 줄고, 앞의 논문, p. 133.

38) Yann Le Bohec, *The Roman Imperial Army*, pp. 120-126.

부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티헬멧 끝부분의 깃털은 일반 병사와 지휘계층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도미티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위대를 포함한 로마병사들의 가장 일반적인 투구인 아티헬멧은 트라야누스 및 콘스탄티누스 부조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턱까지 이어진 단일형 헬멧과 분리형 헬멧 두 종류가 있으며, 그 기원은 페르시아에서 비롯되었다.³⁹⁾

한편, 근위대의 무장상태는 어떠했을까? 근위대 방패는 1세기 초에 타원형 방패를 사용하였다. 이는 1세기 후반 군단병사들이 직사각형 형태의 방패를 사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형태의 부조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볼 때, 군단병사들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칼리굴라 동전에서 근위대가 타원형 방패를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트라야누스 원기둥의 부조에도 단지 사각형의 끝부분이 약간 다듬어진 형태의 사각형 방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시금 3세기에 이르러 타원형 방패로 변화하였다.⁴⁰⁾

3. 로마황제 근위대의 정치·사회적 역할

(1) 근위대의 정치·군사적 역할

원수정기 근위대는 단순히 황제와 그 가족들의 개인적 경호 이외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순수 군사적 임무와 민간행정에 관련된 임무로, 이는 황제의 개인경호라는 본원적 기능

39) Boris Rankov, *Guardians*, pp. 20-21.
40) Boris Rankov, *Guardians*, pp. 21-22.

과 그와의 밀접한 관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황제권력을 떠받드는 중추적 기능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즉 ① 외부원정 동행과 반란 진압군으로서의 역할, ② 사법적(司法的) 역할, ③ 행정/사회적인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먼저, 근위대는 황제의 개인경호를 포함한 전문화된 특수군(特殊軍)으로서 이탈리아 반도 내는 물론 외국원정 중에도 언제나 황제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황제가 아닌 황제가문의 일원이나 후계자가 참전할 때에도 동행하기도 했다. 14년 판노니아 반란 진압을 위한 드루수스 2세의 출정,⁴¹⁾ 14~16년 게르마니아 정복을 위한 게르마니쿠스(Germanicus)와의 동행⁴²⁾이 대표적인 사례들로, 각기 2개 근위대 보병대가 이들을 동행하였다.

속주 주둔군 반란에 근위대가 파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군단병사들은 근위대 병사들에 대해 전통적으로 근무여건, 복무기간, 봉급에 있어 상대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행케 한 것은 황제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원정군 사령관에 대한 개인적 안전뿐만 아니라 근위대 병사를 동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미지, 특히 황제 후계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코자 했던 것이다. 또한, 만일 주둔군 반란이 진압되지 않을 경우, 황제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는 원정에 근위대장 세야누스가 직접 동행하였다는 사실로도 추측 가능하다.⁴³⁾

계속하여 근위대는 종종 제국 내의 각종 반란에 진압군이라는 특수임무를 위해 파견되곤 하였는데, 이 또한 반란사건에 대한 황제의 직접적인 관심과 개입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었다.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기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① 티베리우스 황제 초기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폴렌티아(Pollentia) 도시반란,⁴⁴⁾ ② 24년 근위대 출신 제대 병사 티투스 쿠르

41) Tacitus, *Annales*, 1.24.2.
42) Tacitus, *Annales*, 2.16.3; 2.20.3.
43) Tacitus, *Annales*, 1.24.1.

티시우스(Titus Curtisius)가 주도한 브룬디시움(Brundsium)에서의 노예 반란,⁴⁵⁾ ③ 58년 푸테올리(Puteoli) 도시반란⁴⁶⁾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①의 경우 황제는 코티안 알프스(Cottian Alps) 속주 주둔군 1개 보병대와 로마 주둔군 1개 보병대를 파견하여 진압토록 하였다. 표면적으로 로마 주둔군으로 표현했지만 이는 수도경찰대(urban cohort)⁴⁷⁾가 아닌 근위대로, 그들이 진압작전 전면에 나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모든 것이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근위대는 진압 마지막 단계 까지 배후에서 군단 보병대를 조종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은밀성은 그들이 군단병사들과 함께 파견된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요컨대 황제는 군단병사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들의 강력한 후원자임을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반면, 시민들에 대해서는 반란의 부당성과 그에 대한 황제의 직접 개입 의지를 표명코자 했던 것이다.

②의 경우 먼저 그 지역 재무관 출신 쿠티우스 루푸스(Cutius Lupus)가 해군을 통해 반란을 진압하려 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반란의 기세를 더욱 부채질했을 뿐이었다. 이에 황제는 즉시 근위대 천인대장 스타이우스(Staius)를 급파하여 반란 주도자인 쿠르티시우스를 생포하여 로마로 압송토록 하였다.⁴⁸⁾ 이러한 스타이우스의 파견은 몇 가지의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당시 수도 로마에는 그 수를 무시할 수 없는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바, 황제는 로마를 포함한 도시에서의 노예반란 예방과 반란 시 근위대 동원이라는 수단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③의 경우 원로원이 푸테올리 시민들의 반란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

악하지도 않고 가이우스 롱기누스(Gaius C. Longinus)를 진압군 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시민들은 그의 강경진압에 맞섰고 반란은 오히려 확대일로에 놓여있었다. 이에 네로 황제는 롱기누스를 대신하여 스크리보니우스 프로쿨루스(Scribonius Proculus)와 스크리보니우스 루푸스(Scribonius Rufus) 형제⁴⁹⁾를 근위대 1개 보병대와 함께 파견하였다. 이는 반란에 대한 황제의 관심사항을 표명한 것으로, 형제는 파견된 근위대와 더불어 주동자들을 처형하였고, 그 결과 푸테올리는 다시금 안전을 찾을 수 있었다.⁵⁰⁾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황제 그 자신이 반란진압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자신이 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표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근위대의 군사 및 민간 행정적 역할과 관련된 또 다른 임무로 우리는 범법자에 대한 체포, 구금 및 법집행을 들 수 있다. 공화정기 사법적 행위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사법 집행관이 담당하고 있었다. 원수정 이후 수도경찰대가 공식적으로 그 임무를 대신하고 있었다.⁵¹⁾ 하지만 근위대 또한 황제의 개인 경호부대로서 수도경찰대의 그 어떤 승인도 없이 시민들에 대한 체포, 구금 및 법집행을 주저하지 않았다. 예컨대, ① 30년 아시니우스 갈루스(Asinius Gallus)는 반역의 죄목으로 근위대 병사에게 체포되어 33년 사망할 때까지 자택연금 상태에 있었으며,⁵²⁾ ② 유니우스 갈리오(Junius Gallio) 또한 반역의 음모로 티베리우스에 의해 추방되었다가 누명을 벗고 로마로 되돌아 왔으나 근위대에 의해 자택연금 및 감시 상태에 있었다.⁵³⁾ 계속하여 근위대는 ③ 티베리우스 제위 시 반역죄로 체포된 원로원

44) Suetonius, *Tiberius*, 37.3.

45) Tacitus, *Annales*, 4.27.1-2.

46) Tacitus, *Annales*, 13.48.

47) 자세한 내용은 즐고, 「원수정기 로마황제와 군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 51-53를 참조할 것.

48) Tacitus, *Annales*, 4.27.1-2.

49) 이들은 고지 및 저지 게르마니아 총독을 지냈으며, 후에 네로가 그들을 소환하여 자살을 명하였다. Tacitus, *Historiae*, 4.41.

50) Tacitus, *Annales*, 13.48.

51) Suetonius, *Augustus*, 49.1.

52) Tacitus, *Annales*, 6.23; Dio, 58.3.4-6.

53) Tacitus, *Annales*, 4.68-70; Dio, 58.18.4.

의원 가이우스 게미누스(Gaius Geminus)⁵⁴⁾와 네로 제위 시 트라시아 파에투스(Thrasea Paetus)⁵⁵⁾를 처형하였으며, ④ 무기소지죄로 체포당한 퀸투스 갈리우스(Quintus Gallius)에 대해서도 고문 및 처형을 마다하지 않았다.⁵⁶⁾

이러한 추방자 감시, 범죄자 심문, 음모자 처단과 같은 근위대의 특별임무는 아우구스투스 당대는 물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요컨대 ① 14년 플라나시아(Planasia) 섬으로 유배된 아그리파 포스트무스(Agrippa Postumus)의 처형,⁵⁷⁾ ② 16년 음모연루 가능성이 있던 드루수스(Scribonius Drusus)에 대한 감시활동,⁵⁸⁾ ③ 20년 자택 연금된 피소(Calpurius Piso)에 대한 감시활동,⁵⁹⁾ ④ 29년 세야누스 음모로 판다테리아(Pandateria)로 추방당한 아그리피나(Agrippina)와 네로(Nero)에 대한 감시활동,⁶⁰⁾ ⑤ 48년 메살리나(Messalina)와 가이우스 실리우스(Gaius Silius)에 대한 체포, ⑥ 54년 아시아 총독 마르쿠스 실리아누스(Marcus J Silanus) 암살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들은 모두 황제 가문 및 상류층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이었던 것이다.

한편, 근위대는 ① 소방 활동,⁶¹⁾ ② 극장 및 경기장에서의 공공경비,⁶²⁾ ③ 세금거출,⁶³⁾ ④ 교량건설 및 노력동원⁶⁴⁾ 등 다방면의 사회적 영역에도

54) Dio, 58.4.5-6.

55) Tacitus, *Annales*, 16.32.

56) Suetonius, *Augustus*, 27.4.

57) Tacitus, *Annales*, 1.6; Suetonius, *Tiberius*, 22.3.

58) Tacitus, *Annales*, 2.31; Suetonius, *Tiberius*, 25.1-3.

59) Tacitus, *Annales*, 3.16.

60) Suetonius, *Tiberius*, 54.2; Tacitus, *Annales*, 4.67.

61)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 디오 등 고대 사가들은 6년부터 68년 동안 로마에서 발생했던 46건의 화재발생 시 어김없이 근위대의 출동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Suetonius, *Tiberius*, 50.3; Dio, 57.14.10; Tacitus, *Annales*, 3.72, 15.38.

62) 서커스, 검투시합, 동물경기, 경마 등 90여 회의 경기 진행 시 근위대가 파견되었다. J. P. Baldson, *Life and Leisure in Ancient Rome* (London, 1969), p. 248.

63) Suetonius, *Caligula*, 40.

직접 관여함으로써 통치자로서의 황제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출시키고 있었다. ①의 경우 6년 아우구스투스가 소방대(*vigiles*)⁶⁵⁾가 공식적으로 창설되기 이전까지 어김없이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곤 하였다. 하지만 소방대의 공식적인 창설 이후에도 근위대의 출동은 계속되었다. 15년 베스타 신전 인근에서 있었던 화재사건,⁶⁶⁾ 22년 폼페이우스 극장의 화재사건,⁶⁷⁾ 명확하게 사료로 확인할 수 없지만 64년 대화재에서의 근위대의 활동은 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②의 대표적인 사례는 59년 네로 황제의 극장관람 시의 근위대 동원, 64년 나폴리에서의 극장 관람,⁶⁸⁾ 65년 네로니아(Neronia)에서의 관람⁶⁹⁾ 등을 들 수 있으며, ③의 경우는 기원전 25년 살라시(Salassi), 서기 29년 프리시안(Frisians)에서 있었던 예처럼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는 근위대를 동원하여 직접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기도 했다.⁷⁰⁾ ④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기에 두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칼리굴라 황제 시 전차기마를 위한 마구간을 건설하는 데 근위대가 동원된 것이며,⁷¹⁾ 다른 하나는 네로 황제 시 코린토 운하 건설에 근위대 병사들이 동원된 경우이다.⁷²⁾

이처럼 근위대는 단순히 황제의 개인적 안전을 위한 기능뿐 아니라 국가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다(多)기능 부대(multifaceted unit)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처절한 내전의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는 원

64) 프테올리(Puteoli)와 바이아이(Baiae) 사이 교량 및 코린토스 운하건설 현장에 근위대가 파견되기도 했다. Dio, 59.17.7-8.

65) 줄고, 앞의 논문, pp. 51-53.

66) Suetonius, *Tiberius*, 50.3.

67) Tacitus, *Annals*, 3.72.3.

68) Dio, 61.20.2.

69) Tacitus, *Annals*, 16.5.1.

70) Tacitus, *Annals*, 4.72.1.

71) Josephus, *AJ* 19.257.

72) Suetonius, *Nero*, 19.2.

수정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요컨대 황제는 내란의 혼돈상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이전과는 다른 통제방식이 필요했다. 근위대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었으며, 그 결과 단순한 황제경호를 넘어서는 정치·사회적 임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그 반향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늑대의 귀를 붙잡고 있기(Lupum auribus tenerè)'에 대한 수에토니우스의 지적처럼,⁷³⁾ 황제 자신과 국가의 주요 통치수단으로 근위대는 언제든지 쉽사리 황제의 통치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었다.

(2) 황제계승에 있어서의 근위대 역할

한편, 황제계승과 관련된 근위대의 역할은 결코 황제와 군대와의 관계가 언제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위대의 음모는 황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정적(政敵)을 포함한 상류층을 망라하고 있었다.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35명의 원로원 의원과 300명 이상의 에퀴테스 계층이 처형된 사실⁷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현상은 특정시기의 일탈적 사건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실제 로마사에 있어 어떠한 모습으로 황제계승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을까? 37년 전임 근위대장 퀸투스 마크로(Quintus S. Macro)의 도움으로 가이우스 칼리굴라(Gaius Caligula)가 황제가 되었다.⁷⁵⁾ 그는 사치와 압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즉위 초기 시민들에게 300세스테르티우스를 제공했던 모습과는 달리 39년 이후 검투시합, 전차경주, 연회 등 볼거리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다. 이 중 가장 특이했던 사건은 3.6km가 넘는 폭을 선박이 이어 만든 바이아이(Baiae) 교량이었다.⁷⁶⁾

73) Suetonius, *Tiberius*, 25.1.

74) Suetonius, *Claudius*, 29.2.

75) Tacitus, *Annales*, 6.50.

이러한 일탈적 행위에 더하여 그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킨 결정적 계기는 라인강을 넘어 무모하게 게르마니아 원정길에 올랐던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황제에 대한 반역의 중심에는 근위대 천인대장 카레리아(Chaerea)와 클레멘스(Clemens)가 있었다.⁷⁷⁾

칼리굴라가 암살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클라우디우스(T. Claudius)는 근위대 병사들에게 개인당 15,000세스테르티우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어냈다.⁷⁸⁾ 그는 근위대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근위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황제승계를 공포하였으며, 원로원도 근위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 선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통치수단 강화를 위해 근위대를 12개 보병대로 증가시켰다. 그의 부인 소(少)아그리피나는 황제계승에 있어 근위대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아들 네로가 후계자로 선정되자마자 그녀는 가장 먼저 심복인 부루스(S. A. Burrus)를 근위대장으로 임명했던 것이다.⁷⁹⁾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암살 이후 근위대는 네로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였다. 하지만 통치기간 중 네로의 행위는 술한 암살과 음모의 연속이었으며, 이로 인해 속주총독 및 지배계층의 신뢰회복은 물론 군단들의 충성심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을 무시했으며, 봉급까지도 체불했던 것이다.⁸⁰⁾

이러한 상황에서 갈바(Galba)는 대리인을 근위대에 보내 병사 개인당 80,000세르테르티우스 지급을 약속하였다. 이는 네로에 대한 근위대의 충성심을 저버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액수였다. 이에 근위대는 갈바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였고, 이후 다른 부대들도 차례로 그에 대한 충성을 선포하였다.

76) Suetonius, *Caligula*, 19.

77) M. Grant, *The Army of the Caesars*, pp. 147-148.

78) Suetonius, *Claudius*, 10.4; Dio, 60.1.4.

79) M. Grant, *The Army of the Caesars*, p. 158.

80) 줄고, 앞의 논문, p. 136.

그렇지만 70세가 넘었던 갈바가 예산균형을 맞춰가며 근위대를 비롯한 군대의 충성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는 근위대에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그들과 멀어졌고, 무상곡물 배급마저 삭감함으로써 시민들과도 멀어졌다. 더욱이 그는 칼푸르니우스 피소(L. Calpurnius Piso)를 공동 통치자로 임명하였던 바, 이러한 그의 선택은 강력하고도 유능한 후계자를 기대하고 있던 변경 주둔군과 로마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그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였던 오토를 위협한 정적(政敵)으로 만들었다. 오토는 근위대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며, 자신을 황제로 옹립해 달라고 설득했던 것이다. 이에 근위대 병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갈바와 피소는 암살을 면하지 못했다.⁸¹⁾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저지 게르마니아 군단에 의해 황제로 선포된 비텔리우스(A. Vitellius)의 도전을 받아야만 했다. 오토는 진격하는 게르마니아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 알프스 산맥의 주요 길목을 봉쇄하고자 했다. 그는 다뉴브 군단의 지원을 받아 비텔리우스의 게르마니아 군단을 선제공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게르마니아 군단과 다뉴브 군단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게르마니아 군단이 비텔리우스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다뉴브 군단은 달마티아 2개 군단, 판노니아 2개 군단, 모이시아 3개 군단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오토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쟁의 결과는 오토 측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났다.⁸²⁾

게르마니아 군단에 의해 새로운 황제로 추대된 비텔리우스는 기존의 근위대를 해산하고, 대신 게르마니아 주둔군 및 보조군에서 선발한 1,000명으로 구성된 16개 근위대 보병대를 새롭게 창설하였다. 이는 새로운 황제의 가장 중요한 정치·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로마역사에서 무능하고 부패했던 황제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약속한 보상

81) 졸고, 앞의 논문, p. 137.

82) M. Grant, *The Army of the Caesars*, pp. 191-192.

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일정한 약탈행위를 묵인해 주었다. 이러한 그의 무모한 행동은 또 다른 새로운 황제의 출현을 의미했다.

동방 주둔군은 이미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였으며, 베드리아쿰(Bedriacum)에서 두 번에 걸친 위험스러운 전투 이후 동방 및 다뉴브 주둔군과 함께 로마로 입성하였다. 이에 비텔리우스는 시민들에게 제국의 평화를 위해 퇴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전(前) 황제의 근위대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군대로 합병되었고, 그 규모 또한 9개 보병대로 줄어들었다. 이후 근위대장은 기사계층에서 선임되었으며, 여전히 황제의 주요한 정치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티투스 통치 이후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근위대를 다시금 10개 보병대로 확대하였다.⁸³⁾

96년 도미티아누스 암살 이후 네르바-트라야누스-하드리아누스-안토니우스 피우스-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5현제를 거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제국의 정치는 180년 코모두스(Commodus)의 황제승계에 따라 다시금 정치적 혼란상태에 빠져 들어갔다. 182~5년 근위대장 페레니스(Perennis)와 클레안테르(Cleander)는 코모두스 황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⁸⁴⁾ 페레니스는 브리타니아를 비롯한 강압적인 속주정책을 취했으며, 클레안테르는 군사령관의 임면권과 일상적인 행정업무에도 관여하였다. 188년 근위대 기병대에게 시민들에 대한 학살명령을 내린 것도 바로 그였다. 클레안테르 몰락 이후 코모두스는 새로운 근위대장에 오른 라이투스(Laetus)의 희생자가 되었다.⁸⁵⁾ 새로운 황제 페리티낙스(Pertinax)는 근위대 병사들에게 3,000테나리우스의 보너스 지급을 약속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 역시 결국 3개월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고 근위대 병사들에게 다시금 살해당하고 말았다.⁸⁶⁾

83) 졸고, 앞의 논문, p. 138.

84) Dio, 73.9: 73.13.

85) M. Grant, *The Army of the Caesars*, pp. 250-251.

86) 졸고, 앞의 논문, pp. 139-140.

이후 황제권의 계승을 둘러싼 로마의 역사는 로마제국에서 근위대의 위상과 역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3년 근위대의 제위 공매결과 낙찰된 디디우스 율리아누스(Didius Julianus), 같은 해 다뉴브 군단에 의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의 황제 선포, 217년 근위대장 마크리누스에 의해 암살당한 카라칼라(Caracalla), 218년 근위대에 의해 새롭게 옹립된 헬라오가발루스(Heliogabalus), 222년 다시금 근위대에 의해 13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로 등극하게 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Severus Alexsander), 235년 판노니아 군단 사령관 막시미누스(Maximinus)에 의한 황제 암살 등 군인황제시대 이전까지 거의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로마제국에서 근위대, 특히 근위대장들은 그들의 위상과 통치자에 대한 반동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황제는 물론 로마제국 전체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황제 교체기 제국의 안전과 황제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란을 주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이에 황제들은 근위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다. 황제들은 일반병사보다 높은 급료, 짧은 복무기간, 제대 후 고위관직으로의 진출보장, 기부금 지급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그들의 지속적인 충성심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은 뚜렷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도 쉽게 변화하곤 했던 근위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기존 로마출신 병사를 대신한 속주 주둔군의 근위대 활용 및 에퀴테스 출신 근위대장의 임명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들에게도 이전과 동일한 특권들이 보장되었다. 황제들은 이를 통해 근위대의 지속적인 충성심은 물론 속주 주둔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중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로마황제들은 근위대를 원로원, 속주, 일반시민들에 대한 황제의 강력한 정치력을 표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언제나 그 반대급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통제력의 미흡과 양자의 갈

등은 황제 그 자신의 정치력의 종식은 물론 제국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 갈 수도 있었으며, 소위 '3세기 위기'는 바로 이러한 양자의 갈등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4. 맺 음 말

근위대는 황제와 그 가족들의 개인적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군대의 엘리트 부대였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제국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임무 뿐만 아니라 황제의 중요한 통치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근위대는 비록 경우에 따라 그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당위성도 없이 자신들의 충성의 대상이었던 황제들을 변덕스럽게 갈아치움으로써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원수정기 그들의 정치적 역할은 그 어떤 다른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다.

본고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사가들의 관심영역에서 등한시되던 로마 황제 근위대의 역할 중 특히, 정치·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원수정기 근위대의 전통은 이미 공화정기 군사령관들의 개인적 측근부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완성시킨 것이 아우구스투스였다. 이는 이후 여러 황제들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확대 혹은 축소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원수정기 근위대의 모습은 세야누스라는 인물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며, 그 역할 또한 단순히 황제의 개인적 경호 이외에 정치·사회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근위대 병사들의 모병지역의 다양성 못지않게 그들이 보여준 역할, 요컨대 외부원정 동행과 반란 진압군으로서의 역할, 사법적 역할, 행정 및 사회적 역할은 원수정기 황제의 최측근 부대로서 재정과 더불어 제국을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라틴인

이외에 이민족에 대한 근위대 병사로의 유입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감안할 때, 황제가 제국을 운용하는 통치술의 한 수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황제의 입장에서 제국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민족에 대한 특권적 지위 향상은 그들을 로마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인 충성심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로마제국 내에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행위를 통한 제국의 안정 도모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제국의 안정과 팽창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4. 15, 심사수정일 : 2009. 7. 2, 게재확정일 : 2009. 8. 12)

주제어 : 근위대, 근위대장, 원수정, 보병대, 아우구스투스, 세야누스, 모병, 백인대장, 로마군단

<ABSTRACT>

The Role and Position of the *Cohors Praetoria* of Roman Emperor

Cho, Young-sik

This study is on the political and social role of the Roman emperor praetorian guard in principate. The imperial praetorian guard was an elite unit of Roman Army whose primary responsibility was to safeguard the emperor and his family. Augustus adapted the republican traditional institution which formed the personal army of emperor. It is very short time that the praetorian guard became responsible for military tasks.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they were responsible for various administrative duties in Rome. These functions occurred for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d and the emperor. Not only would they assist in the management of the capital, but also serve as a constant reminder to the people of the substantial armed force.

But the previous studies of praetorian guard have concentrated on the its organization and role as the imperial bodyguard. A few scholars have studied this imperial praetorian guard in a systematic manner since M. Durry and A. Passerini in the early 20th century initiated it. Most researchers on the Roman Military were conducted in part, rendering untouched a variety of critical matters, such as enlistment, organization, equipment, hierarchy of officers, legion and auxilia, strategy and tactics. It i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other responsibilities of the praetorians that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their position in the state.

Therefore,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the figure of the imperial praetorian guard in a few aspect,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Roman Emperor's region basis that was the crucial discourse among historians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ose aspects of the guard that are outside its basic mandate of providing protection for the imperial household. The development of the praetorians into a unit that carried out political role, fought fires in the city and was employed as security at the games. in other words, the praetorian responsibilities fall into two board categories : special military assignments and civil administrative tasks. In my opinion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Key Words : Praetorian Guard, *praefecti praetorio*, *principatus*, *cohors*, Augustus, Sejanus, Enlistment, centurion, Roman Legion